

특별기고 **한국인의 맛 ④**

2. 내재(內在)의 맛(정신미, 심성미)

(1) 가락의 맛
“우리가락은 흥겹지 않으나 구슬
프지도 않으며 정중하지 않으나 경
쾌하지도 않으며 빠르지 않으나 느
리지도 않으며 높지 않으나 낮지도
않은 은은한 느낌을 준다.”

내재의 ‘맛’으로 찾게끔 할 수 있
는 것이 가락이다. 우리 민족은 옛
날부터 남달리 풍류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도 음악을 더 좋아했다. 달
마다 있는 명절에 놀 때는 물론 일
을 하면서까지 노래를 불렀다. 모를
심거나 지경을 다지는 동작을 비롯
해서 마주앉아 두들기거나 아나네들
의 다듬이질이 장단이었으며, 이에 맞
추어 부르던 것이 민요였으며 그
조각이 음악대였다. 이렇게 우리 민
족이 일을 하면서까지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은 피로를 덜고 일을 즐
겁게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고
통을 노래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슬기롭고 풍요로운 ‘낙천
적 맛’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한국 특유의 악기와
음악이 많이 발달하였었다. 그 대
표적이 악기가 거문고를 비롯해서
가야금과 호적이며 풍과리, 장구
등이다. 현악기의 쌍벽을 이루는
거문고와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며
고옥하고 장중하며 강건한 음색인
데 비해서 가야금은 여성적이고 서민
적이며 부드럽고 다정한 음색을 지
니고 있다. 거문고의 기본음은 때
로는 거세나 때로는 잔잔하며 때로
는 광폭하나 때로는 비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전제로 느낄 수 있는 것
은 정한(情恨)한 느낌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정적이며 규
범적인 아름다운 생활 태도와, 감
정을 마음속으로 소화하고 축적하
는 내면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정열적이거나 투지적인 감정보다는
마음의 안정과 조화로 정신적 갈등
인 ‘맛’을 풍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야금은 고상하고 화
평하며 담박한 가운데 부드럽고 자
유분방한 농한(弄閑)적 ‘맛’이 깃들
어 있다. 애타게 입을 기다리는 ‘정
음사’의 여인과 앓다고 떠나는 입을
보내며 여자로 눈물을 감추는 ‘가시
리’에 나타나는 한국 여인의 정한
(情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악기
로, 이를 일러 ‘한(恨)의 여심(女心)
’이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 두 악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 정조가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단조
롭고 ‘은근한 가락’이다. 한국의 가
락은 기술적으로 많은 음계를 복잡
하게 사용하고 화성을 교묘히 이용
한 풍부하고 폭 넓은 서양의 선율
에 비해 단순하고 소박한 속에 많
은 여운과 강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가락의 특징은 흥겹지 않
으나 구슬프지도 않으며 장중하지
않으나 경쾌하지도 않으며 빠르지
않으나 느리지도 않으며 높지 않
으나 낮지도 않은 은은한 느낌을
준다. ‘은근’이라고 한다. 음악의 특
질은 ‘은은한 가락’으로 규정하고
싶다. 이른바 낙이 불류(樂而不流)요

이 불비(衰而不壞)다.
이 은은함을 중용적 조화미라고
한다면 끊어지듯 듯하다가 다시 이
어져 오래도록 가늘프게 울려 퍼지
는 여운은 끈기의 발현이라 하겠
다. 애련한 고음과 그윽한 저음의
여운은 동양화의 여백과 같은 아취
와 유희미가 있다. 심심일체(澁心
一體)의 상태. 이러한 심서를 잘
나타내는 악기가 또한 장구다. 고
음과 저음의 조화미가 교차되는 파
격에 의한 원숙미는 가히 한국 악
기의 대표가 될 만하다.

이러한 한국 음악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아리랑’이다 아리
랑은 그 가락과 가사가 단조롭고
소박한 가운데 은은함과 여운을 잘
나타낸 점에서 민족 공유의 대표적
인 노래라 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가락이 모두 은
은하지만은 않다. 언제 어디서 들
어도 신바람 나는 농악이 있다. 이 때
의 악기가 호적(胡笛)과 풍과리다. 이
것이 바로 한국 음악의 파격적
‘맛’이기도 하다.



정동화 박사
前 재경포천시민회장

이러한 한국 음악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아리랑’이다 아리
랑은 그 가락과 가사가 단조롭고
소박한 가운데 은은함과 여운을 잘
나타낸 점에서 민족 공유의 대표적
인 노래라 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가락이 모두 은
은하지만은 않다. 언제 어디서 들
어도 신바람 나는 농악이 있다. 이 때
의 악기가 호적(胡笛)과 풍과리다. 이
것이 바로 한국 음악의 파격적
‘맛’이기도 하다.

(011-766-2156)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⑫**
건강한 습지 생태계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단국대학교 영남학부

우리는 습지에 대한 지식
이나 정보에 일반적으로 무
관심한 편이다. 우리가 기껏
해야 알고 있는 극히 상식적
인 정보나 지식은 다가오는
2008년10월에 창원에서 ‘건
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
는 슬로건으로 제10차 람사
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과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내륙습지로 창
녕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정
도이다.

우포늪이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고 람사르협
약 습지로 등록된 역사가 겨
우 10년에 불과하기에 습지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물상
식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습지 생태계가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하는 근원적인 완충
지대라는 점을 잊고 지난 지
난 시절의 무관심과 무지를
분명히 반성하고 그것의 특
성을 먼저 깊이 사유하고 실
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마을과 농지
사이를 흐르는 냇강과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습지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우리가 그 냇강의 주변
습지에 대한 향수를 시인이
흘려도 잊지 못하는 것은 수
생식물(물풀)속에 서식하는
장구벌레, 물방개, 미꾸라지,
붕어, 그리고 민물장어에 대
한 추억 때문일 것이다. 그런
데, 지금까지 우리는 냇강의
주변 습지를 쓸모 없는 진흙
땅으로만 생각하고 무척벌레
로 농염용지, 공장용지, 그
리고 아파트 용지로 개발하였
다. 그나마 남아 있었던 냇
강의 주변 습지와 그곳에 서
식하고 있는 생물들도 살충제
남용으로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래이며, 대신 그 자리에는
모글거리는 모기떼의 나쁜 이
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산업화 과
정 동안 잘못 형성된 ‘인간
의 생활공간을 지해하는 유
해곤충의 산란장이자 서식
처’라는 냇강의 주변 습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담판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
러, 우리는 습지 생태계를 공
정적인 가치와 작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습지가
자연생태계 보호, 특히 생물
종 다양성의 유지와 복원에
필수적인 환경자원이란 점
과 깨끗하고 맑은 물이 물환
경 개선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
라서, 우리는 습지의 생태적 기
능과 가치가 무엇이고 왜 보
전하고 잘 가꾸어야 하는 지
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습지 생태계는 고유한 구
성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러한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습지 생태
계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습
지에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습지의 바닥에 형성된 토양,
그리고 습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수생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습
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생태
적 조건으로는 토양이 물로
채워져 연중 일정 기간 동안
얕은 물에 잠겨있는 수문 환
경조건, 배수가 잘 안 되고
습한 땅인 습윤 토양조건, 그
리고 물 속에 잠기거나, 물로
둘러싸여 산소가 부족한 환
경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
는 수생식물 조건 등을 말할
수 있다.

우선, 습지는 다른 어떤
생태계보다 생물학적 생산성
이 활발하여 다양한 생물종
의 서식이 가능할 수 있다.
습지는 물과 육지가 만나는
곳으로 두 영역에서 살아가
는 생물 모두에게 산란장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습지
생태계는 많은 생물종의 먹
이사슬이 형성되는 서식환경
이 되고 있다. 우선 습지 생
태계 속에는 풍부한 플랑크
톤과 유기성 분해물질이 서
식하고 있다. 습지가 확충되
면 그 내부에서 풍부한 플랑
크톤이나 유기성 분해물질이
늘어나 일차적으로 수서곤충
의 먹이를 제공하게 되고,
이차적으로 수서곤충은 조
류, 양서류, 소형포유동물 등
의 다양한 생물종의 먹이가
된다. 습지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 종에게 서식환경을 제
공하는 생태적인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공존의 생명공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습지 생태계는 육
상 생물계와 수중 생물계의
상이한 특성을 동시에 아우
르는 공생 공존의 속성을 내
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습
지 생태계는 두 생태계의 완
충지대이자 점대로서 육상
생물계와 수중 생물계를 잇
는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습지 생태계에서
는 두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생 공존이 가능하게
 되고,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
 와 복원이라는 중요한 기능
 을 지닌다고 하겠다. 습지 생
 태계에는 일정한 규모의 먹
 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어 별
 중위기에 처한 생물을 비롯
 한 다양한 생물 종의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물에 잠겨 있는 습윤
 토양에 서식하는 수생식물
 (물풀)은 산소가 결합된 환
 경에서 살 수 있는 독특한
 식물이다. 물풀은 산소가 매
 우 배출되는 양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한다. 이러한 작
 용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요
 인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
 절함으로써 대기온도 및 공
 기 정화 기능을 갖게 된다.
 수생식물을 뿌리는 토사를 불
 잡아 고정시키면서 하천의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을 보
 전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 수생식물은 주변으로
 부터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
 질을 흡수하여 정화하는 작
 용을 한다. 이로 인해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관리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
 활공간을 건강하게 유지하
 면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습지 생태계가 깨끗하고 맑
 은 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
 한 생물종의 서식공간이 된
다는 점에서 이는 생태환경
의 복원이라는 일차적인 의
미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자
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 공존
하는 생명의 공간을 제공하
는 밑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습지 생태계가 복원되면 우
리의 마을 사이로 흐르는 냇
강에 장구벌, 유글레나, 물방
개, 잠자리충, 거머리, 미꾸
라지, 붕어, 민물장어 등의
다양한 생물들이 다시 찾아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구
리도 마음껏 뛰놀며 자기 안
방처럼 산란처로 이용할 것
이고, 연못가 지취를 감춰버
린 왜가리도 물풀 속의 생물
들이 그리워 곧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오라나 겨울
철새들도 잠시 쉬어 가기 위
해 우리의 냇강을 기웃거릴
것이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적 삶의 공간이
있겠는가?
(010-8357-6625)

교육에세이 81

셸(Shell) 정유회사의 유래가 주는 교훈



이호연
영양초등학교 교장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황색으로 큰 조개무늬
를 그린 유조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셸 정유회사의 상징적인
마크인 것이다. 셸 정유회사가 어
떻게 설립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교훈을 얻어 보
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보통 열세 살 때 ‘바
르비쯔바’라는 성인식을 치른다.
부모들은 성인식을 마치면 그 기년
으로 자녀들을 해외여행을 시킨다.
영국이 거주하던 한 가난한 유대인
가족이 있었다. 부모는 성인식을
마친 아들을 일본에 보내면서 편도
요금만 손에 쥐어 주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
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소년은 일
본으로 떠났다. 어느 날 돈이 떨어
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소년이
해변을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그
는 조개를 캐는 여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데 조개비가 햇빛
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
이 있었다.

“저것으로 단추를 만들면 잘 팔
릴 것이다.” 소년은 조개비로 단추
를 만들어 영국으로 보냈다. 이것은
유럽에서 최고급 민코코트 단추로
선공적인 인기를 끌었고 소년은 큰
돈을 벌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
게 ‘돈 대신 지혜’를 선물한다.

조개비 단추를 유럽에 보급하여
큰돈을 번 유대인이 인도네시아의
유전을 인수했다. 그는 기름을 드
럼통에 넣어 여객선으로 운반했다.
그런데 승객과 선원들이 기름 냄새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다. 그 유대
인은 세계 최초로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선’을 만들었다.

영국 정부는 그 유대인에게 회사
를 영국이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
했다. 그 때 유대인은 정부에 기증
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나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우연히 얻은 조가
비가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
었다. 회사를 양도하는 대신 유조선
과 정유회사에 ‘조가비(SHELL)’로
를 넣어주고 또 한 가지는 친척 중
한사람을 이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
해 주시오.” 이 회사가 바로 세계적
인 다국적 기업인 셸 정유회사다.

비록 열 세 살의 어린 나이임에
도 부모의 세심한 배려로 지혜롭게

키운 결과 후에 엄청난 큰일을 이
룩해 냈다. 한국 부모님들과 유대
인 부모님들의 자녀교육과에 대하
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예화다.
한국의 부모님들과 유대인의 부모
님들의 교육열의는 세계인이 인정
할 정도로 그 열의가 대단하다. 그
러나 과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을 심어 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의 교육적인 배려가 더 나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20년 앞을 내
다보는 통찰력’이라는 주제로 강
의하는 자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뜨끔
해질 만한 말을 남겼다.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주력 산업이 모
두 중국의 손으로 넘어갈지도 모르
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이겨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산업, 새로
운 제품을 개발해 내고, 최고의 CEO
를 발굴해 내어 자체적으로 빌 게이
츠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리관유 전 총리는 굉장한 비전의
소유자다. 그는 1965년부터 무려 26
년 동안 싱가포르의 총리로 일하면
서 늘 2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는 그저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금융과 물류
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을 뿐만 아
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렸다. 싱가포르의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정치는 청렴하
기 이를 데 없다. 매년 발표되는 국
가 청렴도에서 싱가포르를 늘 5위
안팎을 차지한다.

인구 4백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20년 앞을 내다보는 통
찰력, 변화의 방향에 대한 비전 등
을 두루 갖춘 리관유 전 총리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경제적
부과 영향력을 이루지 않았을까.
리관유 전 총리는 비전을 갖춘 한
사람의 리더가 국가의 미래를 어떻
게 바꿔 놓는지를 매우 잘 보여 주
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국력이다. 국가의 지도자
도 교육의 힘으로 양성된다. 우리
의 교육적인 여건은 빌게이츠와 같
은 CEO보다는 리관유와 같은 CEO
를 양성해 내기가 더 쉬운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비해 2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의 세계를 전망하
고 그 시기에 알맞은 통찰력과 변
화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갖춘 지
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
가 되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부모의 시러 깊은 배려가 중요함을
되새겨 보았다. (011-9732-6486)

친환경 포충기 **모기 사냥꾼**

친환경 포충기 **모기 사냥꾼**

본체덮개, 고정용 고리, 본체, 전구, 흡입구, 팬지지대, 팬, 포집망, 3단스위치

한 여름의 불청객 모기여 안녕!

모기 사냥꾼의 원리
모기나 날벌레의 빛을 보고 모이며 열을 감지하여 공격하는 성성을 이용, 형광등의 빛과 열로 유인하여 싸이클론 원리에 의한 강력한 흡입장치로 포획합니다.

제품특징
1. 본 제품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여 바람으로 포획하는 장치입니다.
2. 반경 50m 이내의 모기 및 날벌레를 모두 유인하여 포획할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싸이클론 원리를 도입하였으므로 흡입력이 매우 강합니다.
4. 삼단스위치 조작으로 팬의 작동을 정지시킨후 조명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야간의 야외활동에 편리합니다.(주변의 조명을 끄면 더 효과적임)
5. 포집망의 탈 부착이 간편하여 청소가 용이합니다.
6. 본 제품은 실내용과 야외용(펜션, 가든, 축사, 과수원 등) 두 가지가 있으며, 특히 조명효과가 뛰어나므로 별도의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7. 본 제품은 살충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사용 장소
• 펜션, 가든, 정원, 휴게실, 골짜기, 공원 등
•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키우는 축사
• 포도, 배, 사과, 복숭아, 귤 등 각종 과수원
• 기타 야간 활동이 잦은 곳

실내용, 야외용, 축사·원예용

왜 모기 사냥꾼이 필요한가?
모기에서 물리면 몹시 가려울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뇌염, 당기열(모기가 옮기는 열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서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질병이며, 일본뇌염 역시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아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말라리아나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만이 병균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된 모기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주)대창엔지니어링 |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금주리 1061번지
문의 : (031)531-0100(대) · 011-321-3386